

## 겨울 축제의 온기

도카마치의 겨울은 전통적인 축제와 행사가 많은 계절입니다.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특성상 농업부터 식생활,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눈은 이 지역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도카마치의 겨울 축제는 눈이 키워낸 생명을 축복하는 행사입니다. 또한 축제는 설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정과 협력의 유대를 강고히 하고,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.

도카마치의 대표적인 겨울 행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.

### 도카마치 눈축제

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도카마치 눈축제는 2월 중순에 도카마치 전역에서 개최됩니다. 대형 눈조각을 비롯해 예술작품 전시와 공연, 불꽃놀이 등이 펼쳐집니다. 겨울철에 현대적인 색채를 더하는 ‘도카마치 눈축제’는 쇼와 천황(1901~1989)이 ‘지역주민들이 겨울을 즐기고 눈의 아름다움을 축하하는 축제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한가’라는 제안을 바탕으로 1950년에 시작되었습니다.

### 무코나게와 스미누리

이 독특한 행사들은 마쓰노야마 온천마을의 정월행사 중 일부로 거행됩니다. 매년 1월 15일, 작년에 결혼한 남성들이 고지대 신사에서 5m 정도 아래 눈덩이에 딸 그대로 내던져집니다. 이 관례 행사는 원래 마쓰노야마의 딸을 “빠앗아간” 것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 주민들이 외부 출신 신랑을 눈더미에 던지는 의식이었습니다. 현재는 이 지역 신랑이라면 누구든지 이 의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이후에는 지난해 사용한 부적을 짚으로 만든 장작 위에서 태우는 의식을 진행합니다. 참가자들은 장작에서 나온 그을음을 손에 묻혀 눈과 섞어 서로의 얼굴에 문지릅니다. 그을음이 운세를 좋게한다고 믿었는데, 서로에게 더 많이 칠하려고 하는 이 난투전은 색다른 방법으로 유대감을 강화하는 체험이기도 합니다.

### 오시라쿠라 ‘바이토’ 행사

약 300년 전부터 오시라쿠라 마을 주민들은 매년 1월 14일에 모여 ‘바이토’라고 불리는 원뿔모양 작은 오두막을 짓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이 오두막은 느티나무와 짚을 재료로 만들어지는데, 높이는 약 10m, 지름은 8m 정도입니다. 저녁이 되면 주민들이 오두막 안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전통 노래를 부르며, 서로의 유대감을 다지고 그해의 건강과 풍작을 기원합니다. 오후 9시경 모두가 밖으로 나와 오두막에 불을 지피는데, 그 불길이 약 30m까지 치솟습니다. 이 불꽃의 모양을 보고 그해 농작물의 풍작을 점친다고 합니다.

## ‘도리오이’와 ‘혼야라도’ 행사

눈이 많이 오는 마을에서는 1월 14일 밤에 ‘도리오이(새쫓기)’라는 겨울 행사가 열립니다. 다른 겨울 축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풍습도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다. 아이들이 마을을 돌며 다같이 나무 도막을 두드리고 '새쫓는 노래'를 부르면서 그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나쁜 새를 쫓아냅니다. 마을 어른들은 이 아이들에게 보답으로 떡이나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. 아이들은 이 과자를 먹으면서 ‘혼야라도’라고 하는 눈으로 만든 오두막에서 밤늦게까지 즐겁게 놀았습니다.